17괘 - 택뢰수 - 122112

전체 : 수의 도는 으뜸으로 형통하다. 이로운 것은 정하는 것이다. 허물이 없으리라.

1효 : 처음에 양이 오니, 관에 변화가 생겼을 때 정해야 길하리라. 문을 나서서 사귀면 이룸이 있으리라.

2효 : 음이 두 번째에 오니, 소자와 관계를 맺고, 장부를 놓친다.

3효 : 음이 세번째에 오니, 장부와 관계를 맺고 소자를 놓친다. 따르면 구해서 얻는 것이 있으리라. 이로운 것은 정함에 거하는 것이다.

4효 : 양이 네 번째에 오니, (계속) 따르는 것은 붙잡히는 바가 있으니 (계속) 정하면 흉하리라. 믿음을 가지고 도에 있기를 밝음으로써 하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.

5효 : 양이 다섯 번째에 오니, 믿음이 아름답게 기를 만한 결과에 이른다. 길하리라.

6효 : 극상의 자리에까지 음이 오니, 구속되는데도 관계를 (여전히) 맺고 있는 상이다. 그대로 맹종하면 유지는 하겠지만, 왕이 이로써 서산에 방치고 말리라.

전체 : 양(효) 전체를 한꺼번에 보자면, 따름의 도로써 으뜸으로 형통하게 된다.